



담양 지실마을에 있는 '와룡매'(臥龍梅)는 누워 있는 용이 사방으로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담양 지실마을 와룡매 화폭에 담는다

봄바람 매향에 취한 작가 9명 오늘 현장서 그려 '진경매화전'

'담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다. 하지만 이맘때쯤에는 제아무리 대나무라도 매화의 아름다움을 쫓아오지 못한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 매화가 은은한 봄바람에 실어 보내는 향기는 상춘객들을 설레게 한다. 특히 담양에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매화가 많다. 송강 정철의 고향마을인 지실 마을에 있는 '계당매', 그 옆에 자리한 '와룡매', 지실 마을 건너 편에 있는 '환백당 매화', 소재원 제월당 주변에 있는 '백매', 연천리 '독수매' 등이 있다.



황순철 작가

작가들이 봄바람에 실려온 매향에 취해 현장으로 작업실을 옮긴다. 서양화가 황순철 작가를 비롯해 지역 작가 9명이 2일 오전 10시부터 담양 남면 지실 마을에서 현장 작업전을 갖는다.

이번 프로젝트 주제는 '화중유시 시중유화(畫中有詩 詩中有畫) 진경매화전(眞景梅花展)'으로, 당나라 왕유의 그림을 보고 소동파가 읊은 대목에서 빌려왔다. '그림 안에 시가 있고, 시 안에 그림이 있다'라는 말처럼 이날 그림과 시, 그리고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로 꾸며진다. 황순철씨를 비롯해 류재용, 정경래, 조규철, 조현수, 최요안(이상 서양화가) 허인석, 이선복, 이창훈(이상 한국화가)씨 등 모두 9명의 작

가 참여한다. 또 한편에서는 박경사 시인이 시편을 읊고, 대금 주자 오목대씨와 피아니스트 박의혁씨가 악기를 연주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황씨는 "평소 매화의 정신을 화폭에 펼치는 개인들이 한 데 모여 아틀리에를 짠다"며 "옛 선인들의 불의에 굽히지 않는 높은 절개와 기상을 표현하면서 현장 찾은 일반인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사로 작가들에게는 현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들 마을"과 "배꽃" 등에 전착해 온 황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해마다 '매화'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의 형태나 꽃의 모양이 비슷한

배나무와 매화의 유사하면서도 다른 모습에 매료됐다. 특히 매화 그 특유의 향기와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이라는 말처럼 일생동안 춥게 살아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매화의 기개에 흠뻑 빠졌다. 황씨는 "매향은 모든 향기 중 으뜸"이라고 말했다.

이날 작가들이 화폭에 담은 매화는 송강 정철의 후손인 정태수씨 집에 자리하고 있는 '와룡매'다. 와룡매는 일반 매화와 달리 굳게 자리잡고 누워있는 용이 사방으로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그 자태가 요묘하다. 특히 주변 돌담과 어우러진 모습도 한 폭의 그림을 연출한다. 작가들은 요묘하면서도 신비한 자태와 향기를 각자의 개성으로 화폭에 담아낼 예정이다.

황씨는 "작가들에게 현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취지를 일깨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현장에서 피사체를 들여다보고 느끼면서 화폭에 담으면서 예술정신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의 분위기와 봄 향기가 들쭉 댕기 이번 작업전의 결과물들은 오는 29일부터 5월12일까지 북구 남도향 도음식박물관 전시관에서 일반에 선보이게 된다. /김경민기자kiki@kwangju.co.kr

춤·노래·연극 어우러진 악극 '꿈속의 사랑'

3·4일 빛고을시민문화관 60세 이상 무료 관람

춤, 노래, 연극이 어우러진 악극은 다른 장르에 비해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악극 '꿈속의 사랑'(사진)을 무대에 올린다. 3일(오후 7시30분)과 4일(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크리에이티브 드라마가 지난해 번사극 '검사와 여선생'에 이어 중·장년층 관객들을 겨냥해 준비한 작품이다. 60세 이상 관객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모두가 힘들었던 1960년대, 선영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공장을 다니면서 병든 어머니, 술만 먹는 아버지, 일은 하지 않고 돈 구름 잡는 오빠를 부양하며 살고 있다.



하루 하루 고달픈 삶을 사는 선영에게 오빠의 죽마고우인 사랑하는 연인 동호는 결혼을 재촉 하지만 두 집안은 오래도록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며 동호의 아버지는 결혼을 결사 반대 하는데, 사채업자 강영호는 빛을 갚을 좋은 기회가 있다며 아버지를 도박 판으로 끌어 들인다.

출을 맡았으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영목씨가 음악감독으로 참여했다. 주인공 선영 역의 오선미리아씨를 비롯해 이현, 정이형, 최용규, 한중근, 최효주, 정낙일씨 등이 출연한다. 티켓 가격 2만 5000원, 청소년 1만 5000원. 60세 이상 무료 관람(60세 이상 관객 동반 시 50% 할인). 문의 062-607-79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주소녀들 유·스퀘어에 '불시착'

금호갤러리 8일까지 정다운씨 초대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2~8일 유·스퀘어청년작가 공모에 선정된 정다운씨를 초대해 '우주소녀'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정씨의 두번째 개인전이다.

정씨는 여고생, 코스프레 문화 등을 담았다. 이는 평소 미미인형 등을 사모하던 취미를 회화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실제 그의 작품에는 금발머리를 한 미미인형, 정교하게 조립된 탱크, 만화속 주인공을 흉내내는 코스프레 소녀 등이 등장한다.

특히 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코스프레 소녀들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시켰다. 나로호 발사,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 인터스텔라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소녀들은 나로호를 타고 우주로 수학여행을 떠나거나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과 어우러진다.



'메이들급 우주선 탈취'

인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시 개막식은 2일 오후 6시30분이다. 정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11일 '월출산의 불교문화' 강좌

국립나주박물관(박종환 관장)은 기획 특별전 '월출산'을 기념해 11일 오후 2시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별초청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특별강좌는 '월출산의 불교문화'라는 주제로 월출산 곳곳에 산재한 불교 문화유산에 얽힌 역사를 비롯하여 문화

적 가치와 아름다움 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최인선 순천대박물관장이 '월출산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오후 3시40분부터는 명지대 이태호 교수가 '조선 초기 회화와 월출산의 불화'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이태호 교수

330-7830. /김경민기자kiki@

2015년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대전망과 서,남해안 미래가치 분석

서,남해안 부동산 투자

- 전남도청2차(오룡지구)
- 해남 산이면 위락도시(솔라시도)
- 해남 화원면 대우해양조선

투자가치 판단과 미래분석

궁금하세요?
정말 궁금하세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재테크 상담소 상담전화 ☎(062)576-7955

※ 현지 실전전문가 무료상담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 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임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